

# 국민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그리운 내 님’과 작사가 연구\*

허부문<sup>\*\*</sup>

1. 들어가며
2. ‘그리운 내 님’ 박현영설 비판
3. ‘그리운 내 님’ 문창학설 비판
4. 노래의 탄생 경위와 작사가 검토
5. 나오며

## 국문초록

무명의 독립운동가라고 알려져 온 〈눈물 젖은 두만강〉 속의 노랫말 ‘그리운 내 님’이 2000년대에 들어 거물 사회주의자 박현영(2004),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문창학(2016)이라는 주장이 잇따라 제기되었다. 노랫말을 두고도 1절을 다른 사람이 지었다는 두 가지 견해가 1980년대 이후 등장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그리운 내 님’ 및 작사가의 자리매김이다.

박현영설의 골자는 기왕의 작사가 김용호는 실재 인물이 아니며, 배우 김용환이 영화 촬영차 머물던 두만강변에서 박현영의 탈출 소식을 접하고 작사했다는 것이다. 박현영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차 검증의 부재이다. 김용호는 분명히 실재한 인물이었으며, 김용환은 배우가 아니라 가수 겸

---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임 (NRF-2020 S1A5B5A17089926).

\*\* 전 전주대학교 연구교수

작곡가로 <눈물 젖은 두만강>과는 무관한 존재였다.

문창학설은 작곡가 이시우가 작곡뿐만 아니라 작사까지 한 것처럼 언급한다. 문창학의 거사, 체포, 재판, 사형이 모두 조선 땅에서 이루어졌는데도, 두만강가 출신이라는 이유로 노래의 탄생 배경으로 알려진 만주의 도문과 연결했다. 신문 지면을 통해 꾸준히 보도된 문창학의 체포, 재판, 총살 소식을 풍문으로도 듣지 못한 채 부인이 남편을 찾아다녔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다.

마지막으로 김용호 단독(작사)설, 이시우·김용호 합작설, 한명천·김용호 합작설을 차례대로 살펴보았다. 검토 끝에 한명천·김용호 합작설, 요컨대 한명천이 1절을 짓고 김용호가 2절과 3절을 완성했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그 배경으로 발표 당시에는 무명의 문학청년이어서, 분단 이후에는 북한의 유명 시인으로 명성을 얻은 월북 시인 한명천을 내세우기 어려웠던 남북분단이라는 상황이 있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남북한이 함께 사랑하는 민족가요의 반열에 올라선 가요이다. 필자는 두 개의 ‘그리운 내 님’ 주장과 1절 작사가를 둘러싼 세 가지 이설을 정리했다. 그 결과, ‘그리운 내 님’과 1절 작사가가 제 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눈물 젖은 두만강, 그리운 내 님, 박헌영, 김용호, 김용환, 문창학, 이시우, 한명천)

## 1. 들어가며

### 눈물 젖은 두만강

두만강 푸른 물에 노 젓는 뱃사공/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신고/ 떠나  
간 그 배는 어디로 갔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강물도 달밤이면 목 메어 우는데/ 님 잃은 이 사람도 한숨을 지니/ 추억  
에 목 메인 애달픈 하소/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님 가신 이 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 진 두만강에 밤새가 올면/ 떠나  
간 옛 님이 보구 싶구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1절 한명천/ 2·3절 김용호, 이시우, 김정구, 오케, 1938.2)

대중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은 국민가요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대중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이다. 이 노래 덕분에 김정구는 1980년에 대중가요 가수로는 처음으로 문화훈장보관장을 받았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1981년 창사 20주년을 맞은 MBC가 전국의 1만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가요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노래이자, 1985년 KBS의 트로트가요 시대별 베스트 10에서 1925년부터 1960년까지 발표된 가요 중 1위에 오른 노래이다.<sup>1)</sup>

1993년에 포크 록 가수 강산에가 데뷔곡 〈…라구요〉(강산에, 강산에, 강산에, 1993)의 도입부에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랫말을 차용한 이후에는 세대를 넘어 대중들과 친숙해졌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1997년 서울리서치가 실시한 ‘통일 후 북한 동포와 함께 부르고 싶은 노래’의 여론조사 결과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sup>2)</sup> 이처럼 서정성을 잘 살린 4박자 단조 트로트 곡 〈눈물 젖은 두만강〉은 세월과 세대를 뛰어넘어 한국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노래이다.

대중가요사, 나아가 한국문화사에서 이처럼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랫말 ‘그리운 내 님’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그

1) 최규성, 〈가요앨범 리뷰〉, 『네이버 지식백과』,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3377562&cid=60487&categoryId=60491>, 2022년 11월 9일 접속.

2) 『연합뉴스(www.yna.co.kr)』, 1997년 4월 10일, 2022년 11월 9일 접속.

리운 내 님'이 기존의 무명 독립운동가가 아니라 유명한 거물 사회주의자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 오래이다. 최근에는 '그리운 내 님'이 민족주의 독립투사라는 견해도 등장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탄생 경위부터 정리되어 있지 않다. 애당초 단순한 내용이었으나 세월이 흐르면서 변형과 과장이 더해져 갈피를 잡을 수 없게 되어버렸다. 탄생 경위는 작사가와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작사가가 누구인가에 따라 노래의 탄생 경위도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작사가의 경우, 지금까지 김용호로 알려져 왔으나 '그리운 내 님'과 맞물려 이설이 분분하다. 박헌영설에서는 기왕의 작사가 김용호의 실재 여부에 의문을 표시하면서 작사가는 김용호가 아니라 노래를 부른 가수의 친형 김용환이라고 주장한다. 한편으로 김용호가 노랫말 전부를 지은 게 아니라 일부를 다른 사람이 작사했다는 견해들도 나타났다. 이 논쟁에는 북한의 매체까지 가세해 월북한 시인의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

이 글은 그 동안 제기된 '그리운 내 님' 및 작사가에 관한 여러 가지 주장을 검토해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자 마련한 글이다. 이 작업의 결과, 국민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가와 '그리운 내 님'이 제자리를 찾아가리라고 믿는다. 이 주제를 다룬 기왕의 전문(專論)은 존재하지 않는다.

## 2. '그리운 내 님' 박헌영설 비판

### 2.1. 박헌영설 제기와 문제점

〈눈물 젖은 두만강〉의 '그리운 내 님'이 박헌영이라는 주장을 처음 제기

한 인물은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임경석 교수(이하, 임경석)였다. 임경석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운동 연구로 명망이 높은 학자이다. 임경석은 『동아일보』 2004년 4월 17일자 <책갈피 속의 오늘> 코너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 속의 '그리운 내 님'이 박헌영(朴憲永, 1900~1956)이라는 흥미로운 견해를 내세웠다. 노래를 부른 김정구의 형 김용환이 배우로서 영화 촬영차 머물던 두만강변에서 박헌영의 탈출<sup>3)</sup> 소식을 접하고 노랫말을 지었다는 것이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그리운 내 님'이 박헌영이라는 주장은 엄청난 반향을 불러왔다. 남한에서는 반세기 이상 기피 인물이었으며, 북한에서는 미제(美帝)의 간첩이라는 혐의로 한국전쟁의 실패 책임을 뒤집어썼던 박헌영에게 보인 관심과 폭발력은 대단했다. 거물 사회주의자 박헌영이 지니는 무게감과 사회주의운동 연구에서 임경석이 지닌 권위 때문이었는지 임경석의 주장은 진보적 독자층을 중심으로 뜨거운 반응을 보이면서 확대 재생산되기 시작했다. 호사가들은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저명한 교수·소설가·기자들은 자신들의 저서에 임경석의 주장을 앞다투어 실었다.<sup>4)</sup> 검증이 빠뜨린 채 옮긴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몇몇은 전적으로 신뢰를 보내지는 않았다.

먼저 선성원은 임경석의 주장을 소개한 후에,

3) 1925년 11월 30일 박헌영은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으로 아내 주세죽과 함께 일본 경찰에 붙잡혀 복역하기에 이른다. 박헌영은 재판 도중 광인으로 가장해 1927년 11월 병보석으로 출감했다. 그 후에 고향인 충청남도 예산, 주을온천, 석왕사 등지에서 요양하다가 처가인 함경남도 함흥으로 옮겨 지내던 중 1928년 8월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한다. 안재성, 『박헌영 평전』, 인문서원, 2020, 3장 「조선공산당」 참조.

4)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다산초당, 2008; 손석춘, 『박헌영 트라우마- 그의 아들 원경과 나는 치유 이야기』, 철수와영희, 2013; 안재성, 같은 책 및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인문서원, 2015; 정운현,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인문서원, 2016; 이태영, 『다큐멘터리 일제시대』, 휴머니스트, 2019 등이다.

아직까지는 이 주장의 진위를 판단하기가 어렵다.<sup>5)</sup>

라고 하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김성동은,

참과 거짓은 알 수 없지만 가슴을 후벼 파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sup>6)</sup>

라고 해 중립적이기는 하지만 다소 감정에 치우친 평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강준만은,

(이시우 주도설에 비해) 이 두 번째의 김용환 주도설이 더 가슴에 와 닿지만 (하략)<sup>7)</sup>

이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이처럼 국민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 거물 사회주의자 박헌영, 사회주의운동 연구의 권위자 임경석의 조합이 지닌 파급력은 엄청났던 것이다.

임경석의 주장은 같은 해에 나온 『이정 박헌영 일대기』(역사비평사, 2004)를 집필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의 주장은 조계종 승려 원경(圓鏡, 1941~2021) 스님의 증언에 절대적인 근거를 두고 있다. 원경 스님(이하, 원경)은 박헌영이 남한에 남긴 유일한 혈육이다. 원경은 책을 펴낸 역사문제연구소의 2대 이사장을 지낸 인물이기도 하다.

원경은 1928년 박헌영이 블라디보스토크로 탈출한 13년 후인 1941년 3월 충청북도 청주에서 태어났다.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출신으로 남조선노동당의 손꼽히는 이론가였던 정태식(鄭泰植, 1910~1953)이 청주에

5) 선성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대중가요』, 현암사, 2008, 32쪽.

6) 김성동, 『현대사 아리랑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녹색평론사, 2010, 17쪽.

7) 강준만, 『한국근대사 산책 8』, 인물과 사상사, 2008, 141쪽.

은신하고 있던 박헌영의 아지트 키퍼로 들여보낸 당질녀 정순년(鄭順年, 1922~2004)과 박헌영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다. 사생아를 낳은 사실을 알게 된 부모가 노발대발하며 딸을 친정으로 데려가자, 원경은 할머니 손에서 자라나다가 절에 맡겨진다. 원경은 당연히 박헌영의 탈출 과정을 목격하지 못했을 것이다. 어렸을 때 잠시 만난 생부의 기억도 거의 없다고 말한다.<sup>8)</sup>

원경을 절에 데려다 키운 인물이 김제술(金濟述, 1910~미상)로, 법명은 한산이다. 한산은 원경이 장성할 때까지 여러 차례 도움을 주곤했다. 한산의 생애는 자세히 알려진 내용이 없지만, 해방 정국에서 남조선노동당의 비선 실세이자 박헌영의 측근이었다고 한다.<sup>9)</sup> 한산이 동경제국대학 출신이라는 주장도 있으나 확인은 되지 않는다.<sup>10)</sup> 이러한 한산이 원경에게 박헌영의 탈출 경위와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가가 김용환이라고 전했으며,<sup>11)</sup> 원경으로부터 전해 들은 임경석이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한산→원경→임경석으로 이어진 증언이 확대·증폭되면서 <눈물 젖은 두만강>의 '그리운 내 님'이 박헌영이라는 주장이 널리 퍼지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임경석은 물론, 임경석의 주장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원경의 증언을 교차 검증(Cross Checking)을 거치지 않고 비판 없이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신봉했기 때문이다.

8) 손석춘, 앞의 책, 31쪽 및 38쪽.

9) 김성동, 앞의 책, 489-494쪽에 김제술의 짙막한 전기가 나온다.

10) 정중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의 부록 320-344쪽의 <도쿄제국대학 조선인 졸업생·동창생 명부(1877~1945)>에 실린 163명의 이름 가운데 '김제술'을 찾을 수 없다. 창씨개명한 인물 중에서도 김제술이라고 추정할 만한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11) 손석춘, 앞의 책, 131쪽.

증언이 그 자체로 실제적 진실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독자들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증언이 힘을 가지려면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될 때 최종 확증된다.<sup>12)</sup>

인용문은 필자의 것이 아니라 언론인 손석춘이 원경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저서에 나오는 내용이다. 손석춘의 인용문은 보천보전투(1937. 6. 4.)를 김일성이 지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원경의 증언에 대한 반박이다. 보천보전투 김일성 지휘는 남한 학계에서도 인정하고 있다. 원경은 이 이야기를 한산에게서, 한산은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李鉉相, 1905~1953)으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인용문의 원칙은 보천보전투 김일성 지휘 부정 설뿐만 아니라 <눈물 젖은 두만강> 김용환 작사설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내세울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으면, 적어도 구체성이 있으며 일치하는 여러 사람들의 증언이 존재해야 한다. 원경의 증언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헌자료는 전무하며 추가 증언도 나오지 않고 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자가 김용환이고 '그리운 내 님'이 박헌영이라는 주장은 원경이 한산의 말을 절대 신뢰했고, 이를 이어받은 임경석이 원경의 말을 여과 없이 받아들인 결과라고 본다. 임경석은 원경의 증언을 꼼꼼히 확인했어야 했다.

원경은 두산그룹 창업주 박승직(朴承稷, 1864~1950)이 박헌영 탈출 사건의 기획자였다고까지 이야기한다. 그때까지 언급하지 않았던 박승직이 등장했다. 김용환이 박승직에게 박헌영의 탈출 성공을 알리기 위해 사전에 약속한 암호인 '님'을 노랫말 속에 삽입했다는 것이다.<sup>13)</sup> 박승직은 이

12) 손석춘, 앞의 책, 93쪽. 아이러니컬하게도 손석춘은 임경석의 말을 빌려 원경의 증언을 반박하고 있다.

13) 『한겨레신문』, 2015년 12월 10일.



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 피살 직후인 1909년 11월에 그를 추모하는 국민대추도회의 발기인과 위원을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동안 줄곧 친일행위를 해 온 인물이다.<sup>14)</sup> 박승직과 김용환의 나이 차이는 45세에 달한다. 어울리기에 적당한 연배가 아니다. 이 경우에도 증언뿐이다.<sup>15)</sup> 원경의 증언에는 허점이 너무 많다.

## 2.2. 작사가 김용호의 실재 부정 반박

임경석의 주장은 기왕의 작사가 김용호(金用浩, 1909~1967)의 존재 부정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노래의 작곡자는 이시우, 작사자는 김용호이다. 하지만 작곡자와 달리 작사자인 김용호가 어떤 사람인지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sup>16)</sup>

라고 하면서 김용호의 실재를 부인한다. 임경석의 주장이 맞다면, 가요인들은 실체도 없는 김용호를 임경석이 문제를 제기한 2004년까지 70년 가까이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말일까.

김용호의 출생지와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그는 1930년대 조선의 재즈 밴드 중에서 가장 이름 높았던 오케(Okeh)레코드 전속의 C.M.C 밴드 소속 트롬본 연주자였다. 김용호는 작사도 하고 만담

14)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박승직' 항목. 이런 박승직을 두고 원경은 각주 13)의 기사에서 '조국의 해방을 위해 장사로 번 돈을 아낌없이 항일조직에 희사했던' 독립운동가라고 주장한다.

15) 시중에 나와 있는 박승직 전기에는 원경의 증언과 같은 내용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김동운,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혜안, 2001; 이수광, 『거상 박승직』, 미루북스, 2009; 박상하, 『박승직상점 하』, 매일경제신문사, 2013.

16) 임경석, 앞의 책, 147쪽.

의 대본을 쓰기도 했다. 악극에도 관여해 연출가, 혹은 작가로 활동했다. 해방 이후에도 극작과 연출 활동을 이어갔으나 특기할 만한 작품은 보이지 않는다.<sup>17)</sup>

김용호가 작사한 노래는 다음과 같다. <북국의 외로운 손>(김용호, 박시춘, 남인수, 오케, 1937.12), <풍년송>(김용호, 문호월, 고복수/이은파, 오케, 1937.12), <망향가>(김용호, 양상포, 남인수/이난영, 오케, 1938.1), <귀곡새 우는 밤>(김용호, 양상포, 고복수, 오케, 1938.2), <술 뒤에 오는 것>(김용호, 박시춘, 이난영, 오케, 1938.3), <창랑에 지는 꽃>(김용호, 손목인, 이난영, 오케, 1938.5), <환상곡>(김용호, 손목인, 고복수, 오케, 1938.5), <미소의 코스>(김용호, 박시춘, 이난영, 오케, 1938.6), <가정전선>(김용호, 손목인, 김정구/장세정, 오케, 1938.11), <달 없는 항로>(김용호, 엄재근, 이난영, 오케, 1939.4), <집시의 고향>(김용호, 김송규, 김해송, 오케, 1939.4) <봄타령>(김용호, 손목인, 고복수/김정구, 오케, 1939.6), <이역에 우는 사나이>(김용호, 손목인, 이인권, 오케, 1939.7), <물방아>(김용호, 손목인, 이화자, 오케, 1939.8), <화류애정>(김용호, 손목인, 이화자, 오케, 1940.5), <신베를가>(김용호, 미상, 이화자, 1940.6), <허송세월>(김용호, 박시춘, 이화자, 오케, 1940.7), <청춘 하이킹>(김용호, 손목인, 이인권, 오케, 1940.5), <초부(樵夫)의 아내>(김용호, 박시춘, 이난영, 오케, 1940.6), <눈물의 연가>(김용호, 손목인, 이인권, 오케, 1940.7), <명량한 부부>(김용호, 손목인, 김정구/장세정, 오케, 1940.10), <물방아>(김용호, 손목인, 이화자, 오케, 1939.8), <남의 다리를 굽다가>(김용호, 김송규, 손석봉, 오케, 1941.3) 등이다. <눈물 젖은 두만강>을 제외하고도 23곡을 헤아린다.<sup>18)</sup>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 이 노래들의 작사자

17) 박찬호 지음 안동립 옮김, 『한국 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255쪽.

18) 이 목록은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韓國大衆歌謠史 I』, 2003과 최창호 지음 강현

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김용호이다.

대중가요계에서 김용호가 남긴 족적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4장에서 서술하겠지만 김용호는 어떠한 경우에도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와 관련되는 인물이다.<sup>19)</sup> 가요사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활동을 펼친 김용호는 몇몇 책에 사진까지 실려 있다.<sup>20)</sup>

의심할 여지없이 실존했던 인물 김용호를 임경석은 어쩌서 실재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했을까. 김용호의 실재를 부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만든다. 역사학자 임경석은 가요, 가요인, 가요사를 등한시한 것으로 보인다.

### 2.3. 김용환 작사설의 허구

김용환 작사설은 김용호 실재 부정설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룬다. 기왕의 작사가 김용호를 부정해야 김용환이 들어설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역으로 김용호의 실재가 입증되면 김용환 작사설은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 김용호가 실재 인물로 확인된 이상 ‘그리운 내 님’ 박현영설은 의미가 없지만, 전체 구도를 이해하기 위해 김용환 작사설도 검토하기로 한다. 먼저 임경석은,

그러나 원경 스님의 증언은 다르다. 그에 따르면 이 노랫말의 지은이는

---

해설,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사』, 일월서각, 2000 및 이동순, 『한국 근대가수 열전』, 소명출판, 2022에서 망라한 것이다.

19) 김용호는 김용호 단독설, 이시우·김용호 합작설, 한명천·김용호 합작설에 모두 연관되는 인물이다.

20)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같은 책, 333쪽 및 송방송, 『한겨레음악인대사전』, 보고서, 2012, 191쪽.

가수 김정구의 친형 김용환(金龍煥)이다.<sup>21)</sup>

라고 했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자가 김용환이라는 자신의 주장이 원경의 증언에 따른 것임을 밝혔다. 손석춘도 마찬가지로 원경의 증언이라고 말한다.

원경 스님은 당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보도된 박현영의 탈출 소식을 가수 김정구의 친형 김용환이 두만강변에서 접한 뒤 노랫말을 짓고 동생이 부른 노래가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고 말했다.<sup>22)</sup>

모두 원경의 증언뿐이고 구체적 증거는 뒤따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안재성은,

〈눈물 젖은 두만강〉에 얽힌 사연은 박현영의 조카이자 수행비서였던 김제술이 박현영의 아들 박병삼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했다.<sup>23)</sup>

고 한다. 원경의 증언에 안재성이 살을 붙였음을 추측케 한다. 박병삼(朴秉三)은 원경의 속명이다.

임경석은 김용호의 실재를 부정하는 각주 16)의 내용이 원경의 증언이라고는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어지는 글에서 기존의 김용호도, 북한의 월간 예술 전문잡지 『조선예술』(2002년 12월호)에서 주장하는 한명천도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각주 21)의 내용처럼 원경의 증언을 가져와 작사자가 김용환이라고 주장한다.

21) 임경석, 『이정 박현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147쪽.

22) 손석춘, 앞의 책, 27쪽.

23) 안재성, 『박현영 평전』, 670쪽.

김용환(1909~1949)은 함경남도 원산 출신으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부른 김정구의 친형이다. 김용환은 원산 지역의 극단 동방예술단에서 연극배우로 연예계에 입문했다. 연예계 입문 초창기의 김용환을 배우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배우는 배우이되 영화배우가 아니라 연극배우였다.

얼마 후에 김용환은 포리돌레코드사의 전속가수 겸 작곡가가 되어 신민요 <두만강 뱃사공>(이원순, 임벽계, 김용환, 포리돌, 1934.5)을 발표하면서 가요계에 데뷔한다. 대표작으로 작곡과 노래를 겸한 것에 <이꼴 저꼴>(김광, 김탄포, 김용환, 포리돌, 1933.8), <눈깔 먼 노다지>(김성집, 조자룡, 김용환, 빅터, 1939.6), <장모님전 향의>(김성집, 김양춘, 김용환, 빅터, 1940.3) 등을 들 수 있다.

노래만 부른 것으로는 <상해 릴>(금운탄, 미상, 김용환, 포리돌, 1935.7), <울고야 떠날 길을>(금운탄, 미상, 김용환, 포리돌, 1937.4) 등이 눈에 띈다. 또한 오케레코드사에서도 전속 작곡가·가수로 활동하면서 이화자를 발굴해 <꿀망태 목동>(조명암, 김영파, 이화자, 오케, 1938.12), <가거라 초립동>(조명암, 김영파, 이화자, 오케, 1941.4) 등의 곡을 주어 그녀를 인기가수의 반열에 올려놓았다.<sup>24)</sup> 작곡가로 활동할 때는 임벽계, 조자룡, 김탄포, 김영파 등의 이명(異名)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상에서 보듯 김용환은 초기에는 포리돌레코드사에서, 1939년 이후에는 빅터레코드사와 오케레코드사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작곡을 겸했던 노래만 불렀던 위에서 제시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그가 관계한 작품은 모두 248곡에 달한다.<sup>25)</sup>

김용환의 가요 생애에서 가장 의미 있는 작품은 <사대문을 열어라>(박

24) 김용환의 일대기는 박찬호 지음 안동립 옮김, 앞의 책, 309-314쪽 및 이동순, 앞의 책, 170-180쪽에서 간추렸다.

25) 이동순, 앞의 책, 631-640쪽.

영호 작사, 김용환 작곡, 1945.8)일 것이다. 감격스러운 해방 직후의 분위기 속에서 김구(金九, 1876~1949)를 비롯한 임시정부 요인들과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이 귀국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들뜬 와중에 가요인들은 1945년 8월 22일 종로 2가의 기독교서적 빌딩 4층에 모여 이들의 환영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방의 기쁨을 나타내는 노래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이다. 여러 작품을 검토한 끝에 <사대문을 열어라>로 결정했다. <사대문을 열어라>는 '제1호 해방가요'라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sup>26)</sup> 조국 광복을 맞이한 벅찬 감격과 이상사회 건설에 대한 희망으로 충만한 노래이다.<sup>27)</sup>

다소 장황하게 김용환의 생애와 작품에 대해 살펴보았다. 임경석이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가라고 주장하는 김용환의 일생에서 영화인으로서의 경력은 찾아볼 수 없다.<sup>28)</sup>

박헌영이 소련으로 탈출한 1928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서 두만강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은 것으로 <사랑을 찾아서>가 있다. 나운규프로덕션의 나운규(羅雲奎, 1902~1937)가 제작, 감독, 주연을 맡았다. 나운규, 윤봉춘, 이금룡 등이 출연한 무성영화이다. 원제는 <두만강을 건너서>였으나 총독부 당국의 압력으로 <저 강을 건너서>로 바뀌었으며, 삭제한 장면을 삽입했다는 이유로 개봉 5일 만에 재검열을 거쳐야 했다. 당국은 <사랑을 찾아서>라는 멜로영화(?) 제목을 강요했고 프로덕션측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26) 전체 3절 가운데 1절의 가사를 소개한다. 사대문을 열어라 인경을 쳐라/ 반만년 옛터에 먼동이 튼다/ 노동자야 농민아 청년 학도야/ 새 세상은 우리의 것/ 앞으로 앞으로.

27) <사대문을 열어라>는 출처, 『대중가요, 역사로 읽기-이주와 이산의 노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8, 138-139쪽의 내용을 간추려서 옮겼다.

28) 강옥희/이영미/이순진/이승희, 『식민지시대 대중예술인 사전』, 소도, 2006, 53-55쪽; 박찬호 지음 안동림 옮김, 앞의 책, 309-314쪽 등 김용환을 언급한 어느 글에서도 그가 영화와 관련이 있었다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사랑을 찾아서>는 조선총독부와 동양척식주식회사의 토지 수탈로 고향을 잃고 북간도를 향해 떠난 유랑민들이 마적과 일본군 국경수비대 사이에서 희생당하는 이야기이다. 두만강은 물론 만주까지 가서 로케이션을 단행한 <사랑을 찾아서>에 나운규의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 주민 1,000여 명이 엑스트라로 출연하기도 했다. 1928년 4월 10일 인사동의 조선극장에서 개봉해 1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다.<sup>29)</sup> 영화의 개봉 날짜는 박헌영이 탈출한 날짜보다 4개월 이상 앞선다.

김용환 작사설을 따르는 사람들은 김용환이 영화 촬영차 두만강가에 머물다가 박헌영의 탈출 소식을 듣고 <눈물 젖은 두만강>을 작사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영화의 촬영감독은 이창용이다. 연출진이나 스태프(특히 음악담당)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확인하기 힘들다.

박헌영이 소련으로 탈출한 사실 자체는 본고의 주제와 그다지 관련이 없다. 그러나 박헌영의 탈출이 '김용환'과 엮일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이런 점에서 안재성의 글은 반드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안재성은 임경석의 뒤를 이어 '그리운 내 님' 박헌영설과 <눈물 젖은 두만강> 김용환 작사설을 강력하게 주장한다.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가의 평전 집필가로 유명한 안재성은 『박헌영 평전』에서 김용환을 박헌영 부부의 탈출 과정에서 지대한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그리고 있다. 나아가 <눈물 젖은 두만강> 작사에 얽힌 김용환의 사연을 증폭하고 있다. 가장 구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안재성의 글은 추측과 과장을 넘어 거의 창작 수준이다. 다음은 안재성 주장의 요약이다.

(가) 김용환은 박헌영과 조력자들이 세운 계획에 따라 1928년 9월 1일에 개봉하는 함경선을 이용하기로 했다. 기록영화를 촬영한다는 명목으로

29)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123-125쪽.

연예단원들을 위한 전용칸까지 마련해 박헌영과 만삭의 주세죽을 연예인으로 꾸며 소련으로 탈출시켰다. 청진을 지날 무렵 양수가 터져 열차 안에서 주세죽은 딸아이를 낳았다.

(나) 우여곡절 끝에 두만강 하구에 도착한 박헌영 가족은 밤이 되기를 기다려 조선인 뱃사공이 노를 젓는 나룻배를 타고 무사히 국경을 건넜다. 김용환은 강 언덕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며 구슬픈 노랫말을 지었다.<sup>30)</sup>

탈출 날짜 및 탈출 수단·경로는 따지지 않기로 하자. 상세히 알려주는 자료도 없으며,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본고의 주제와 무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와 전혀 무관한 김용환이 (가)의 내용처럼 행동할 수 있었는지 큰 의문이 든다. 안재성은 김용환이 당대의 유명한 배우이자 영화 연출자였기에 가능했다고 말한다.

나아가 안재성은 “김용환은 연예인으로서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적당히 친일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내밀하게는 항일운동을 지원하는 모브르의 조직원이었다”<sup>31)</sup>고 주장한다. 모브르란 국제혁명기구위원회를 가리키는데 옥중에 있거나 망명 중인 혁명가들을 돕는 국제구호협회였다. 박헌영 스스로 탈출 후에 작성한 이력서에 “동행해 준 동료들의 도움이 있었다”<sup>32)</sup>고 했으므로 탈출 과정에서 모브르와 같은 조직의 도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은 충분히 가능하지만<sup>33)</sup> 김용환이 그 조직원이었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임경석은 영화 촬영차 두만강변에 머무르다가 박헌영의 탈출 소식을 접

30) (가)와 (나) 모두 안재성, 『박헌영 평전』, 143-144쪽.

31) 안재성, 같은 책, 143쪽.

32) 임경석, 앞의 책, 146쪽.

33) 손석춘은 박헌영의 아내 주세죽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실명소설 『코레예바의 눈물』, 동화, 2016, 182쪽에서 박헌영 부부는 공청(=고려공산청년회) 회원의 도움으로 어선을 이용해 흥남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갔다고 이야기한다.



한 김용환이 두만강을 찾은 후에 음악적 영감이 떠올라 〈눈물 젖은 두만강〉을 작사했다고 한다. 원경의 증언을 곧이곧대로 인용한 임경석의 주장도 근거를 찾을 수 없지만, 박현영 가족과 두만강까지 동행한 김용환이 멀어져 가는 나룻배를 바라보며 노랫말을 지었다는 (나)의 대목에 이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쯤 되면 완전한 창작이다. 앞에서 인용했듯이 안재성은 각주 23)의 인용문에서 김제술이 박병삼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토대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안재성은 그 자체로 허구인 토대 위에 역시 허구인 구조물을 너무 많이 쌓아 올렸다. 안재성도 임경석과 마찬가지로 가요, 가요인, 가요사에 너무나 무관심했다.

김용환은 작곡과 노래에 모두 뛰어난 대중음악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항일운동가 조력은커녕 군국가요를 노래하고 작곡한 친일가요인이기도 했다. 김용환은 중일전쟁이 발발하자 군국가요 〈반도 의용대가〉(이주, 김준영, 김용환, 포리돌, 1937.11)를 노래했으며, 역시 군국가요인 〈남아의 의기〉(이부풍, 미상, 김용환, 포리돌, 1937.11)를 작곡했다.<sup>34)</sup> 아시아·태평양전쟁 시기에는 악성(惡性) 군국가요 〈우리는 제국군인〉(김정의, 김용환, 최창은, 태평, 1943.9)의 노랫말에 선율을 붙이는 오점을 남겼다.<sup>35)</sup>

〈우리는 제국군인〉은 일제의 징병제 실시를 기념해 1943년 9월 조선총독부기관지 『매일신보』가 모집한 ‘이천오백만이 창화(唱和)할 반도개병(半島皆兵)의 노래’ 공모전에 당선된 곡이다. 이 때문에 해방 직후에 김승학이 작성하고 민족정경문화연구소에서 펴낸 『친일파 군상』의 연예계 부

34) 두 곡은 음원이 전하지 않는다.

35) 전체 4절 중에서 군국의 색채가 가장 짙은 4절의 가사이다. 팔괘(八紘)을 한테로 세우는 이상/ 나타낼 반도의 사나이들아/ 거친 세기를 차 넘고 가자/ 우리는 정의의 칼을 들고/ 황도(皇道)를 휘날릴 제국의 군인이다.

문에 작사가 김정의와 함께 이름이 올랐다.<sup>36)</sup>

거듭 이야기하지만, 김용환은 영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물이다. 더욱이 1909년생인 김용환은 박헌영이 소련으로 탈출한 1928년에는 19세에 지나지 않았다.<sup>37)</sup> 안재성은 김용환의 활약을 강조했으나 19세의 김용환이 박헌영 부부의 탈출을 주도한 후에 <눈물 젖은 두만강>의 노랫말을 지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다. 안재성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어떠한 자료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안재성의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가정하자. 박헌영이 탈출한 후에 김용환은 어떻게 되었어야 할까. 일본 경찰은 팔짱만 끼고 있지 않았다. 박헌영의 탈출 소식을 처음 보도한 1928년 11월 15일자 『동아일보』는 “함흥경찰서장 이하 책임자들은 경계 소홀로 징계를 받았다”고 한다. 징계와는 별도로 수사에 착수한 일경에 의해 김용환은 체포되어 취조와 고문 끝에 재판에 넘겨졌어야 상식이다. 김용환을 비롯한 기록영화 촬영팀, 동원한 연예단원들이 신문을 받은 조서도 재판에 넘겨진 기록도 찾을 수 없다. 4년 후인 1932년에 데뷔하는 김용환은 가요계 입문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 3. ‘그리운 내 님’ 문창학설 비판

사회주의 독립운동가 박헌영에 이어 민족주의 독립투사 문창학이 ‘그리운 내 님’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문창학이라는 인물에 대한 소개가 필요하

---

36) 이준희, <군국가요 다시 보기 (9)>,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2003년 8월 4일. 2015년 9월 19일 접속. 『친일파 군상』은 김학민/정운현 엮음, 『친일파 죄상기』, 학민사, 1993에 들어 있다.

37) 1912년생이라는 주장도 있다. 박찬호 지음 안동립 옮김, 앞의 책, 309쪽.

다. 그의 출신지가 눈길을 끈다. 문창학(文昌學, 1882~1923)은 함경북도 온성군에서 태어나 성장했다. 온성군은 두만강을 경계로 만주의 혼춘(琿春), 도문(圖們)과 접경을 이루는 곳이다. 두만강 인근이 고향인 독립운동가 문창학이 노래 속의 '그리운 내 님'으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창학의 사촌형이 상해 임시정부 초창기에 교통총장을 지낸 문창범(文昌範, 1870~1934)이라는 사실도 의미를 지닌다. 문창범은 온성군과 이웃한 경원군 출신으로 어린 시절에 아버지를 따라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했다. 장성한 후에 독립운동에 투신한 문창범은 연해주의 3·1운동을 주도하기에 이른다.

한일 강제병합 이후에 방황하던 문창학의 삶은 연해주의 사촌 형이 다녀간 후 크게 바뀐다. 문창학은 경원군에 소재한 신건원(新乾原)주재소의 헌병보조원으로 들어가지만 얼마 후에 그만둔다. 1919년 3·1운동에 참가한 후 만주로 망명한 문창학은 대한군정서(=청산리대첩을 이끌어낸 북로군정서의 전신)에 가입해 활동한다. 그러나 청산리전투 이후에 일제의 탄압으로 만주에서의 독립운동은 어려워졌다.<sup>38)</sup>

1920년 12월 김학섭·김병관 등이 노령(露嶺)으로 건너가 대한독립군 결사대를 조직하자, 문창학은 이 조직에 가담한다. 결사대는 일제의 관공서 파괴와 밀정 처단을 결의하고, 함경북도 용기군 경찰서와 금융조합을 습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1921년 1월 김학섭과 문창학의 주도 아래 결사대는 용기에 도착했으나 일본군의 경계가 심해 문창학이 헌병보조원으로 근무했던 신건원주재소를 습격하기로 계획을 바꾸었다. 1월 5일 신건원에 도착한 결사대는 주재소를 기습해 일인 순사를 사살하고 주재소 숙사를 파괴했다.

38) 국가보훈처 사이트(<https://www.mpva.go.kr>), 『독립유공자정보』, 「이달의 독립운동가」, 2016년 5월 기사. 2023년 1월 9일 접속.

문창학은 그 후에 혼춘에서 무장 항일투쟁을 계속하다가 밀정의 신고로 일본영사관의 경찰에 체포되었다. 체포된 문창학은 함흥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923년 12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한다.<sup>39)</sup>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sup>40)</sup>

2016년 5월 국가보훈처가 문창학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함으로써 ‘그리운 내 님’은 문창학이라는 주장이 처음 나왔다. ‘그리운 내 님’은 3인이 되었다. 애당초 이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은 드물었으나, TV 드라마에 의해 확산되기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 MBC는 2019년 5월 4일부터 7월 13일까지 40회에 걸쳐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작’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드라마 〈이몽(異夢)〉<sup>41)</sup>을 방영했다. 의열단 단장 김원봉(金元鳳, 1898~1958)을 주인공으로 설정했으나 허구를 많이 가미한 시대극이다. 이 드라마의 14화(5월 25일 방영분) 말미에 보훈처의 문창학설에 근거를 둔 〈눈물 젖은 두만강〉 사연이 화면에 소개된 이후 문창학이 ‘그리운 내 님’이라는 주장이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보훈처 사이트에 실려 문창학설의 근거가 된 내용을 분석하면 어렵지 않게 모순점을 발견해낼 수 있다. 보훈처의 글에는 작곡자만 있고 작사가는 없다. 여인의 사연을 여관주인에게서 들은 이시우가 두만강변에서 악상이 떠올라 노래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악상이란 작곡할 때의 구상을 의미한다. ‘그리운 내 님’은 노랫말의 한 구절이다. 이시우가 작사했는지, 작곡했는지, 아니면 둘 다 완성했는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문창학설에서 가

39) 신건원주재소사건에 대한 함흥고등법원 판결문은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 CJA0000125 문서번호 : 771484 성명: 김학섭 외 1인 쪽번호 681-708에 나와 있다.

40) 국가보훈처 사이트(<https://www.mpva.go.kr>), 앞의 글.

41) 조규원 극본, 윤상호 연출, 이요원/유지태/남규리 주연.

장 큰 문제점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문창학과 도문이 관련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문창학과 도문은 큰 관련이 없다. 문창학은 함경북도 온성 출신으로 경원에서 거사했다. 1922년 12월, 문창학은 동지 김학섭 등과 일본영사관 경찰에 체포되어 청진으로 압송되었다. 문창학과 김학섭 등 13명은 1923년 5월 26일 함흥 지방법원 청진지청에서 사형, 무기징역, 10년 징역형 등의 중형을 선고받는다. 1923년 9월 28일, 문창학과 김학섭은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가 기각되자 고등법원에 상고했으나 1923년 11월 8일, 역시 기각되어 사형이 확정되었다. 문창학은 1923년 12월 2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총살형에 처해졌다. 문창학의 거사, 재판, 사형은 모두 조선 땅에서 일어난 일이다.

문창학은 두만강 너머 만주에서 활약하다 만주국의 일제 경찰(혹은 헌병)에 체포된 끝에 사형에 처해진 것이 아니다. 보훈처 기록은 문창학의 손자 말을 인용해 “젊은 나이에 남편과 추억이 많았던 두만강을 보려고 (할머니는) 일부러 도문으로 갔으며, 여관주인과 문창학이 친분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부인의 시댁인 온성과 문창학의 거사 현장인 강원도 두만강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다. 부인이 만주 도문의 여관에 투숙해야 할 개연성이 떨어진다.

고향을 떠난 남편이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이곳저곳으로 찾아 헤매던 부인이 일본 경찰(혹은 헌병)에게 남편이 총살당한 소문을 들었다는 주장도 의문이 든다. 신건원사건은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등을 통해 상세히 알려지기에 이른다. 『매일신보』 1922년 1월 24일자 <신건원사건 상보> 기사를 시작으로 재판의 고비마다 내용이 보도되었다. 문창학 등이 체포된 이후 <신건원사건>(1922. 8. 31. 『동아』, 『조선』), <신건원주재소 습격 범인 4명에 사형 언도>(1923. 6. 2. 『동아』), <신건원사건 복심법원에 공소 대기>(1923. 6. 23. 『동아』), <사형수 2명의 공소공

판 신건원주재소 습격사건)(1923. 9. 13. 『조선』), <신건원사건 공소기각을 언도>(1923. 9. 29. 『동아』), <사형선고 받은 2인 상고 신건원사건 피고>(1923. 9. 30. 『동아』, 『조선』), <신건원사건 공소심도 역시 사형>(1923. 11. 15. 『동아』) 등이 그러했다.

함경북도 온성의 대부호였던 문창학의 집안에서 신문 구독은 몰라도 열독은 하지 않았을까.<sup>42)</sup> 문창학의 집안에서는 전문(傳聞)으로라도 소식을 접하지 못했을까. 문창학의 부인은 남편의 체포에서 사형 집행에 이르는 기간 동안 옥바라지를 했어야 정상이다.

문창학설에서는 이시우가 묵은 도문의 여관 옆방에서 부인이 밤새워 울던 날이 문창학의 생일이었다고 말한다. 『남평(南平)문씨 인터넷대동보』에 따르면, 문창학은 ‘의안공-래-관북파’ 31세손이고 생년월일은 임오년(1882) 11월 2일(음)이다. 김해(金海)김씨인 부인은 신사년(1881)생으로 문창학보다 한 해 연상이다. 문창학설을 취하면, 부인이 도문의 여관에 투숙한 날짜는 1935년 11월 2일(음)이다.<sup>43)</sup> 나이는 54세로 당시로서는 할머니였다. 일부에서 젊은 여인이라고 한 주장과 차이가 난다. 근거가 많이 부족한 ‘그리운 내 님’ 문창학설은 적지 않은 모순을 지니고 있다.

#### 4. 노래의 탄생 경위와 작사가 검토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와 작사가는 노래의 탄생 경위와 밀접하게

---

42) 22칸 방을 소유한 문창학의 집에서는 가을걷이가 끝나면 소달구지 수십 대에 곡물을 실어 독립군의 군자금으로 쓰라고 내어놓았다고 한다. 국가보훈처 사이트(<https://www.mpva.go.kr>), 앞의 글.

43) 이 해의 음력 11월 2일은 양력으로 11월 27일(수)에 해당한다.

연결되어 있다. 노래의 탄생을 둘러싼 세세한 내용은 가락을 잡기 힘들 정도이다.<sup>44)</sup> 난마처럼 얽혀있는 노래의 탄생 경위와 거론되는 작사가들을 동시에 들여다보아야 하는 이유이다.

첫째는 김용호 단독설이다. 1935년 어느 날(중엽, 여름, 가을) 만주 도문에서 순회공연을 마친 극단 예원좌의 청년 작곡가 이시우가 옆방에 투숙한 어느 여인(젊은 여인)이 흐느껴 우는 사연을 여관 주인에게서 듣고 김용호에게 작사를 부탁한 후에 극단의 소녀가수더러 노래를 부르게 했다는 것이다.

김용호 단독설의 근거는 1938년 2월에 발매한 오케레코드사의 SP 음반이다. 음반표지에는 ‘김용호 작시, 이시우 작곡, 박시춘 편곡, 유행가 눈물 저즌 두만강, 독창 김정구’라고 되어있다. 그 후에 대부분의 연구자가 이를 답습하면서 관행으로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눈물 젖은 두만강〉이 발표된 후에 조선 민중이 상당한 반응을 보이자 1943년에 총독부는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이어지는 해방공간 및 한국전쟁 이후에 〈눈물 젖은 두만강〉은 한동안 유행의 바람을 타지 못했다. 전쟁이 끝나고 남북 대립이 첨예화 한 시기에 가수 김정구가 부를 수 있는 노래는 드물었다. 그가 부른 노래의 대부분이 월북 작사가 조명암과 박영호의 작품이었기 때문이다.<sup>45)</sup> 김정구는 〈눈물 젖은 두만강〉을 노래할 수밖에 없었다. 1963년에 〈눈물 젖은 두만강〉을 주제가로 삼은 동명의 영화가 만들어졌다.<sup>46)</sup> 이듬해에 KBS 라디오 〈김삿갓 북한방랑기〉<sup>47)</sup>의 시그널 뮤직으로 방송을 타면서 1960년대 중반 이후 노래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노래의 작사가와 작곡자에게도 관심이 쏠리게 되었다.

44) 차이가 나는 내용은 일일이 언급하지 않고 간주로 다루었다.

45) 이동순, 앞의 책, 640-644쪽.

46) 민경식 감독, 이민자/최남현/박암 주연, 정병준 제작, 1963.

47) 이상만 연출, 오정한/신원균/구민 출연.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오랜 문헌인 『가요 반세기 흘러간 옛노래』 및 『가요 반세기』보다 1년 후에 나온 『동아일보』 1973년 3월 6일 기사<sup>48)</sup>에도 김용호 작사, 이시우 작곡으로 되어있다. 『동아일보』의 내용은 이시우의 증언을 인용한 기사이다.<sup>49)</sup>

1980년대가 되면 이전과 다른 주장이 등장한다. 『경향신문』 1981년 5월 30일 기사는 위에서 제시한 간략한 이야기에 상당한 내용을 추가해 놓았다. 관심을 끄는 부분은, 이시우가 1절을 지어 극단의 소녀배우(소녀가수) 장월성(장성월)을 시켜 부르게 하자 큰 반응을 얻었으므로 귀경한 후에 김용호더러 2절과 3절의 작사를 부탁해 몇 년 후에 오케레코드사에서 발매했다는 사실이다. 이시우가 1절을 짓고 김용호가 2·3절을 지었다는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이다.<sup>50)</sup> 이 무렵부터 ‘김용호 단독설’과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이 병용되면서 1990년대 후반까지 이어진다.

김용호 단독설과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을 둘러싼 쟁점은 이시우가 김용호와 함께 순회공연을 다녔냐에 달려있다. 다음 날 밤(그날 밤)에 열린 공연에서 극단의 소녀가수가 노래를 부르려면 김용호와 이시우는 함께 순회공연을 다니고 있었어야 마땅하다. 오케레코드사의 조선악극단 사업부장 겸 작사가로 활약하던 김용호는 애당초 예원좌의 순회공연에 동행할 수 없는 처지였다. 두 사람은 순회공연을 함께하지 않았다. 이 점에서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이 김용호 단독설보다 훨씬 합리적이다. 『동아일보』가

48) 이길범, 연예수첩 반세기 가요계 (23), ‘김정구와 두만강’.

49) 『가요반세기』와 『동아일보』 외에 최창봉 편, 『문예총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황문평, 『노래 백년사』, 송일문화사, 1981; 황문평, 『야화, 가요 60년사』, 전곡사, 1983 및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1991; 정두수, 『노래 따라 삼천리』, 미래를 소유한사람들, 2013 등이 이 설을 인용하고 있다. 정두수의 책을 제외하면 시기적으로 앞서는 문헌들이다.

50)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은 박찬호 지음 안동림 옮김, 앞의 책과 이영미·이준희 책임편집/해설, 『사의 찬미 (外)』, 범우, 2006 등에서 지지한다.



인용한 이시우의 증언은 치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이 점차 힘을 얻어가는 가운데 1990년대 중반에 들어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에 이른다.

〈눈물 젖은 두만강〉의 작사가를 둘러싼 세 번째 주장은 한반도의 북쪽으로부터 왔다. 한명천 원작설이 그것이다. 병립해 오던 김용호 단독설과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에 한명천 원작설이 추가되었다.

한명천 원작설은 최창호의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사』를 통해 알려졌다.<sup>51)</sup> 이 책은 김대중 정권(1997. 2~2002. 12) 시기의 남북화해 분위기 속에서 나왔다. 1995년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발행한 책을 2000년에 남한에서 펴낸 것이다. 북한 작가의 글이 남한 독자들에게 알려졌다. 월북 이후에 북한의 유명 시인이 된 한명천의 이야기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북한 사회에 알려졌음을 추측케 한다.

가장 차이 나는 부분은 여인의 사연을 들은 이시우가 다음 날 도문에서 만난 문학청년 한명천에게 작사를 부탁했으며, 경성으로 돌아와 시인 김용호에게 맡겨 노랫말을 가다듬은 후에 발표했다고 한다. 한명천이 작사한 원래 가사 전부에 김용호가 손을 댄 셈이다. 한명천 원작설은 '한명천 작사, 김용호 개작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sup>52)</sup>

한명천의 생애는 자세히 알려진 내용은 없으나, 필자가 조사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전라북도 익산군 오산면 출신인 한명천은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동생과 함께 흑룡강성(黑龍江省) 오상현(五常縣)으로 살 길을 찾아 이주한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에 남긴 1편의 시가 전한다.<sup>53)</sup> 한

51) 최창호 지음 강헌 해설, 앞의 책, 132쪽 및 302쪽.

52) 전명일, 「계몽기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과 리시우」, 『문화어학습』 2003, 4월호 및 『천리마』, 2005년 5월호. 『문화어학습』과 『천리마』는 북한의 월간 대중잡지이다. 『천리마』의 내용은 『경남도민일보』, 2016년 8월 19일자 기사에서 재인용했다.

53) 『詩人春秋』 2집, 시인춘추사, 1938, 37쪽에는 '韓鳴泉'이 지은 「명원풍경」이 실려 있

명천의 월북 경위는 분명하지 않다. 월북한 한명천은 <북간도>(1947)<sup>54</sup>, <단조공(鍛造工)의 노래>(1949), <보통노동일>(1955) 등을 발표해 북한에서 명성을 얻었으나 요절하기에 이른다. 그의 작품 중에서 김일성의 영웅적인(?) 항일혁명투쟁을 서사시로 재현한 <북간도>는 조기천의 <백두산>과 함께 북한의 2대 장편서사시로 꼽힌다.<sup>55</sup> 한국전쟁 시기에 의용군으로 입대했다가 북한군을 따라 월북한 후에 화가로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쳐 1988년에 공훈예술가 칭호를 받은 한명렬이 그의 동생이다.<sup>56</sup>

2000년대 들어 다수의 북한 매체들이 <눈물 젖은 두만강>을 다룬 기사를 쓰기 시작한다. 모두가 최창호의 책과는 조금 다르게 ‘1절 한명천, 2·3절 김용호’라고 주장한다.<sup>57</sup> 한명천 원작설이 아니라 이시우·김용호 합작설의 1절 이시우, 2·3절 김용호에서 이시우 자리에 한명천이 들어간 1절 한명천, 2·3절 김용호설의 한명천·김용호 합작설이 등장한 것이다. 이시우 대신 한명천이 들어간 한명천 1절설은 이미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왔다.<sup>58</sup> 필자 또한 이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북한 매체들이 <눈물 젖은 두만강> 이야기를 빈번히 다룬 이유는 당시의 북한 최고지도자 김정일(金正日, 1942~2011)과 무관하지 않다. 김정

다. 한명천의 한자 이름은 韓鳴泉, 韓鳴川, 韓明泉 등으로 일정하지 않다. 『詩人春秋』는 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과 아단문고 등에 소장되어 있다.

54) <북간도>는 1959년 북경(北京)의 인민문학출판사에서 번역출판되었다.

55) 이명재 엮음,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1103쪽.

56)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www.cybernk.net/)』, <인물정보관>의 ‘한명렬’ 항목에 한명천 형제의 이야기가 나와 있다. 2023년 2월 22일 접속.

57) 『조선예술』, 2002년 12월호.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2023년 2월 26일 접속.

58) 김의부, <이시우에 대한 연구보고서>, 거제문화원향토사연구소, 2016. 『경남신문』, 2016.10.19.에서 재인용. 김종근, 「<눈물 젖은 두만강>, 민족 이산의 처절한 아픔」, 건국대학교통일인문학연구원, 『가요 속 통일인문학』, 씽크스마트, 2018 및 이동순, 앞의 책, 183쪽 등이다.

일 국방위원장은 『노동신문』 2005년 11월 27일 기사에서 “우리나라(=북한)에서는 계몽기 가요들이 민족의 재보(財寶), 유산으로서 가치를 새롭게 찾게 됐다”고 말해 계몽기 가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sup>59)</sup> 계몽기 가요란 일제강점기에 불린 대중가요를 가리킨다. 나아가 김정일은 2007년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문학예술 부문 책임일꾼들과의 담화에서 <눈물 젖은 두만강>을 좋아하는 노래라고 밝혔다. 이 노래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김 위원장은 김일성 탄생 90주년과 조선인민군 창건 70주년이 되는 2002년에 만든 대집단체조와 예술 공연 ‘아리랑’에 첫 노래로 <눈물 젖은 두만강>을 넣기도 했다.<sup>60)</sup>

발매 당시에 이시우와 오케레코드사가 ‘한명천’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한명천이 문학청년이었던 사실과 무관하지 않은 듯하다. 분단 이후에 무명의 문학청년은 북한의 유명 시인으로 성장했다. 남과 북은 전쟁을 치렀으며 이데올로기 대립이 오래도록 계속되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이어진 남한의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한명천’을 드러내기란 불가능했으나 시대 상황의 변화가 가져온 남북관계의 긴장 완화 흐름이 우리 사회더러 한명천을 수용하게끔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경상남도 거제시 출신 이시우는 한국전쟁 이전에 경찰에 투신해 지리산 공비 토벌에 참여한 후에 간부로 승진한 이력뿐만 아니라 관변(官邊) 경력도 지니고 있었다.<sup>61)</sup> 이러한 이시우가 반공이 국시였던 시절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시인으로 훌쩍 커버린 한명천을 내세우기 힘들어 자신이 1절을 작사했다고 주장한 것이 아닐까. 발표 당시에는 무명의 문학청

59) 『연합뉴스(www.yna.co.kr)』, 2008년 2월 18일. 2022년 11월 11일 접속.

60) 고수석, <김정일이 좋아한 한국 노래는>, 『중앙일보』, 2015.4.2.

61) 황문평, 『야화, 가요 60년사』, 전곡사, 1989, pp.54-56. 『거제인터넷신문(www.gjin.kr)』 2009년 4월 22일 기사에는 이시우의 경찰 및 관계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학력·이력이 소개되어 있다.

년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성을 부리던 시절에는 북한의 유명인사가 된 월북 시인 ‘한명천’을 밝히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 5. 나오며

본고는 <눈물 젖은 두만강>의 ‘그리운 내 님’을 둘러싼 이설들을 정리하고 작사가를 밝히는 작업이었다. 먼저 두 개의 주장이 추가되면서 3인이 되어버린 ‘그리운 내 님’이 정말로 누구인가를 추적해 새로이 제기된 두 가지 주장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기왕의 작사가 실재 부정에서 출발한 박현영설은 애당초 성립할 수 없는 주장이었다. 문창학설은 여러 면에서 근거가 부족했다. 이어서 노래의 탄생 경위 및 탄생 경위와 뿔레야 뿔 수 없는 작사가를 둘러싼 주장이 나온 배경을 더듬어보았다. 그 결과, 1절은 한명천이 작사하고 2·3절은 김용호가 지었다는 결론을 이끌어내었다.

‘그리운 내 님’이 박현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지 19년, 문창학이라는 주장이 나온 지는 7년이 흘렀다. 첫 번째 주장은 제기 직후에 진보적 지식인들 위주로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으며, 두 번째 주장은 네티즌들을 중심으로 퍼져나갔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이들 주장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 근현대사 연구자는 없었다. 가요, 가요인, 가요사에 대한 무관심 때문이었을 것이다. 박현영, 혹은 문창학이라는 역사적 인물이 작사가 및 가수 겸 작곡가와 얽혀 논쟁거리가 되었다. ‘그리운 내 님’ 박현영설을 주장하고 지지하기에 앞서 가요, 가요인, 가요사도 함께 들여다보았어야 했다. 대중가요 또한 역사의 산물이 아닌가.

가요연구자들의 침묵도 지적하고 싶다. 대중가요 연구자들은 ‘그리운 내 님’ 박현영설이나 문창학설에 누구도 정식으로 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의 오랜 침묵은 그릇된 주장을 긍정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박현영 연구가 목적이려면, ‘소련으로의 탈출’과 관련된 증언은 그 동안의 연구 공백을 메우는 가벼운 주제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박현영을 오래도록 연구해 온 임경석, 손석춘, 안재성 등이 꼼꼼히 살피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가요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민대중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 작사가, 작곡가, 가수가 삼위일체를 이루는 정삼각형의 한 변(邊)을 송두리째 들어내어야 하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연구의 결과, 작사가가 바뀌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으며 일부를 보완하는 선에서 그쳤다.

‘그리운 내 님’이 박현영, 혹은 문창학이라는 주장은 문헌자료를 이용한 반박이 가능했다. 그러나 작사가 연구는 자료 부족으로 가설에 적지 않게 의존했다. 김용호는 글이나 증언을 남기지 않았으며, 월북한 후에 요절한 한명천의 경우는 애당초 핵심에 접근하기 힘들었다. 이시우의 증언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 치밀한 검토와 분석에 기반한 교차 검증이 필요하다. 이 점이 본고의 한계이다. 가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찾아내는 작업을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눈물 젖은 두만강〉은 대한민국의 국민가요를 넘어 북한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민족가요의 반열에 올라선 지 오래이다. 이처럼 남북한에서 함께 사랑받는 노래의 명성에 편승해 무명(無名)에 실명(實名)을 부여하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는 주장이 다시 나타날지도 모른다. 필자만의 부질없는 생각이기를 바란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거제인터넷신문(www.gjn.kr/)』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향신문』

『東亞日報』

『每日新報』

『오마이뉴스(www.ohmynews.com)』

『연합뉴스(www.yna.co.kr)』

『조선예술』

『조선일보』

『중앙일보』

『천리마』

『한겨레신문』

드라마 <이몽>(MBC 방영)

강옥희·이순진·이승희·이영미, 『식민지시대 대중예술인사전』, 소도, 2006.

김학민·정운현 엮음, 『친일파 죄상기』, 학민사, 1993.

이명재 엮음,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이영미·이준희 책임편집 및 해설, 『사의 찬미 (외)』, 범우, 2006.

이태영, 『다큐멘터리 일제시대』, 휴머니스트, 2019.

최창봉 편, 『문예총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76.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친일인명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9.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韓國大衆歌謠史 I』, 한국대중예술문화연구원, 2003.

한국문화방송주식회사 편저, 『흘러간 옛노래 歌謠半世紀』, 성음사, 1972.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성남, 1991.

## 2. 논문과 단행본

- 강준만, 『한국근대사산책 9』, 인물과사상사, 2008.
-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연구단, 『가요 속 통일인문학』, 씽크스마트, 2018.
- 김동운 『박승직상점, 1882-1951년』, 혜안, 2001.
- 김성동, 『꽃다발도 무덤도 없는 혁명가들』, 녹색평론사, 2010.
- 문옥배, 『한국 금지곡의 사회사』, 예술, 2004.
- 박상하 『박승직상점 하』, 매일경제신문사, 2013.
- 박찬호 지음 안동립 옮김, 『한국가요사 1』, 미지북스, 2009.
- 선성원,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우리 대중가요』, 현암사, 2008.
- 손석춘, 『박현영 트라우마-그의 아들 원경과 나는 치유 이야기』, 철수와영희, 2013.
- 손석춘, 『코레예바의 눈물』, 동하, 2016.
- 『詩人春秋』 2집, 시인춘추사, 1938.
- 안재성, 『박현영 평전』, 인문서원, 2020.
- 안재성, 『잃어버린 한국현대사』, 인문서원, 2015.
- 이동순, 『한국 근대가수 열전』, 소명출판, 2022.
- 이수광 『거상 박승직』, 미루북스, 2009.
- 이영미, 『한국대중가요사』, 민속원, 2006.
- 이영일, 『한국영화전사』, 소도, 2004.
- 이철, 『경성을 뒤흔든 11가지 연애사건』, 다산초당, 2008.
- 임경석, 『이정 박현영 일대기』, 역사비평사, 2004.
- 정두수, 『노래 따라 삼천리』, 미래를소유한사람들, 2013.
- 정운현, 『조선의 딸, 총을 들다』, 인문서원, 2016.
- 정종현 『제국대학의 조센징』, 휴머니스트, 2019.
- 최창호 지음 강현 해설, 『민족수난기의 대중가요사』, 일월서각, 2000.
- 통일인문학연구단, 『가요 속 통일인문학』, 씽크스마트, 2018.
- 허부문, 『대중가요, 역사로 읽기-이주와 이산의 노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8.
- 황문평, 『노래 백년사』, 송일문화사, 1981.
- 황문평, 『야화, 가요 육십년사』, 奎曲社, 1983.

### 3. 기타자료

국가기록원 사이트(<http://www.archives.go.kr>).

국가지식포털 북한지역정보넷([www.cyvernk.net](http://www.cyvernk.net)).

국가보훈처 사이트(<https://www.mpva.go.kr>).

남평(南平)문씨 인터넷대동보([www.moonsi.com](http://www.moonsi.com)).

『네이버 지식백과([terms.naver.com](http://terms.naver.com))』.

통일뉴스(<http://www.tongilnews.com>).



## Abstract

### A research “Missing You” and lyricist of national song “Tearful Duman River”

Heo, Bu-Moon(former Jeonju University)

In the 2000s, it was argued that my longing for the song of the “Tearful Duman River”, known as an unknown independence activist, was a big socialist Park Heon-young(2004) and a nationalist independence activist Moon Chang-Hak(2016). Even though Kim Yong-Ho wrote all three verses, two views that another person wrote the first verse appeared after the 1980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the position of the lyricist of the first verse and the lyricist of the first verse.

The main point of Park Heon-young's theory is that the lyricist Kim Yong-ho is not a real person, and actor Kim Yong-hwan has heard the news of Park Heon-young's escape from the Duman River where he was filming. In addition, Kim Yongm-Ho was a real person, and Kim Yong-Hwan was not an actor but a singer and composer and had nothing to do with the “Tearful Duman River”.

Moon Chang-Hak's theory refers to the composer Lee Shi-Woo as if he wrote not only the composition but also the lyrics. Even though Moon Chang-Hak's actions, arrest, trials, and executions were all carried out in the land of Joseon, he was linked to Domun(도문) of Manchuria(만주), which is known as the background of the birth of the song because he was from the Duman River. It is also not convincing that he has been searching for his husband without hearing the news of the arrest, trial, and firing of Moon Chang-Hak, which has been reported steadily through the newspaper.

Lastly, this study examined Kim Yong-Ho's theory, Lee Shi-Woo and Kim Yong-Ho's theory, and Han Myung-Cheon and Kim Yong-Ho's theory

in turn, and concluded that Han Myung-Cheon and Kim Yong-Ho's theory, in short, Han Myung-Cheon made the first verse and Kim Yong-Ho completed the second and third verses. As a background, I heard the situation that it was an unknown literary youth at the time of the announcement, and after the division, it was difficult to establish a North Korean poet Han Myung-Cheon, who became as a famous poet of North Korea.

“Tearful Duman River” is a song that rises to the rank of a national song that the two Koreas love together. As a result, I think that my nostalgic nymph and the first lyricist have found my place.

**(Keywords : “Tearful Duman River”, ‘Missing you’, Park Heon-Young(박현영), Kim Yong-Ho(김용호), Kim Yong-Hwan(김용환), Moon Chang-Hak(문창학), Lee Shi-Woo(이시우), Han Myung-Cheon(한명천).**

논문투고일 2023년 5월 13일

논문심사일 2023년 5월 31일

수정완료일 2023년 6월 2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9일